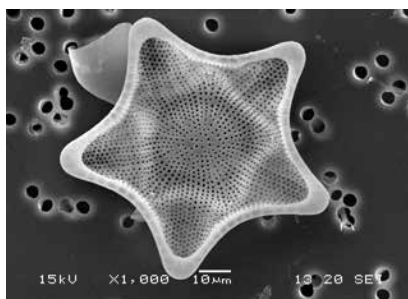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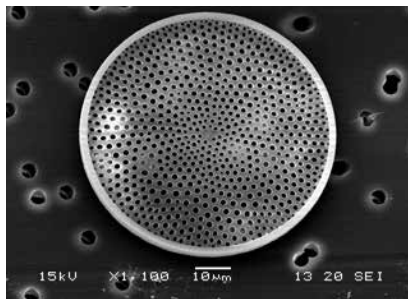


현미경 속 아름다움... '오션 사이언스 아트전' 개최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해양생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색다른 전시회가 열린다. 부산 영도의 해양클러스터 내 서로 이웃한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웅서)과 국립해양박물관(KNMM, 관장 주강현)이 공동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오션 사이언스 아트 : 바다, 미시, 미감'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KIOST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중 현미경으로 포착한 해양생물들의 미세한 세계가 다양한 전시기법을 통해 소개된다. 행사는 자연 형상의 미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국립해양박물관과의 과학·문화·예술의 융복합 테마 전시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해양과학기술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전시는 주제별로 ▲ 1부 마이크로스코프 & 마이크로오션: 현미경, 바다의 마이크로 세계 발견 ▲ 2부 마이크로오션 그래픽: 마이크로오션의 예술적 기록 ▲ 3부 마이크로오션 오마주: 마이크로오션이 준 예술적 영감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전시 기간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다.

전시를 준비한 두 기관은 "해양, 과학, 예술이 만나 과학 문화의 꽃을 피우고,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열어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다의 내밀한 세계에 숨겨진 경이로움과 미감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